

한국인과 일본인의 환자용 사상체질 설문지 문항 응답 비교 연구

류동훈 · 정종훈 · 배우열* · 김규곤† · 전수형 · 김종원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재활의학과
†동의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Responses to the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Dong-Hoon Ryu, Jong-Hoon Jeong, U-Yeol Bae*, Kyu-Kon Kim†, Soo-Hyung Jeon, Jong-Wo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

**Dept. of Oriental Rehabilita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

†Dept. of Information Statistics, Dongeui Univ.

Object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responses of Korean to the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with those of Japanese and to learn difference in characteristic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between two countries.

Methods

301 Korean visiting the department of the Sasang Constitution, Dong-Eui Medical Center in Busan, Korea from November 2006 to September 2010 responded to the SSCQ-P(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Sasang Constitution specialist interviewed subjects and diagnosed their Sasang Constitution. 361 Japanese visiting the center for Kampo Medicine, Keio University in Tokyo, Japan from January 2010 to February 2011 responded the SSCQ-J(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Japanese). The Sasang Constitution was diagnosed in the same way as Korean. We compare responses to the SSCQ-P in Korean with those to the SSCQ-J in Japanese.

Results

1. Among Soyangin related 58 items of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26, 46.36% ite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 result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and response disposition of all these items was same. Among Taeumin related 68 items, 36, 52.94% ite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 result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Of these, response disposition of 35 items was same and that of 1 item was different. Among Soeumin related 71 items, 31, 43.66% item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ponse result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Of these, response disposition of 28 items was same and that of 3 items was different.
2. The proportion of items having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am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by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 category[Features and Way of Speaking, Physical Appearance, Temperament and Talent, Pathological Syndromes] was as follows;
In Soyangin, the proportion in Pathological Syndromes was 27.8% and that in the others was more than 41.7%. In Taeumin, the proportion in Pathological Syndromes was 33.3% and that in the others was more than 57.9%. In Soeumin, the proportion in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was 70.6%, that in Physical Appearance was 8.3% and that in the others was 30~40%.

Conclusions

The response disposition of many of items having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was same and that of a few was different. From this, there are many common Sasang Co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countries, and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f Korea to Japan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Korean, Japanese, Response Disposition

Received July 05, 2013 Revised July 15, 2013 Accepted August 30, 2013

Corresponding Author Jong-Won Kim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Korean Medical Hospital, 479-7 Shinjung-dong, Nam-gu, Ulsan, 680-011, Republic of Korea.

Tel : +82-52-220-8101 Fax : +82-52-256-0665 E-mail : jwonkim@deu.ac.kr

© The Society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I. 緒論

사상의학은 기본적으로 동무 이제마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안한 의학이지만 심신의학(醫學)으로서의 사상의학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적용하여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외국인에 있어 心, 身, 證의 특성들이 그들만의 유전적,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한국인의 그것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국인에게 사상체질의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사상체질적 특성들을 비교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외국인에 대한 사상체질 진단 개발과 병증 인식에 따른 치료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

국외를 대상으로 한 앞선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로 고 등¹이 외국인용 사상체질 분류검사지(new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new QSCC II+)를 이용하여 미국인에서의 사상체질 적용 가능성 및 체질 분포에 관해 알아보았고, 신 등²이 사상체질음성분석기를 이용하여 미국성인의 체질별 음향 특성을 연구하였으며, 유 등³, 이 등⁴이 환자용 사상체질 설문지(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이하 SSCQ-P)를 바탕으로 개발한 사상체질 설문지(Short Form_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SF_SSCQ)를 미국인에게 적용하여 체질

별 응답 경향성 및 응답의 신뢰도를 평가하여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김 등^{5,7}은 몽골인을 대상으로 한 사상체질 설문지(2003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Mongolian; 03'SDQ-M)를 개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몽골인 사상체질 설문지(2005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Mongolian; 05'SDQ-M)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등⁸은 몽골인의 안면 형상을 이용한 체질진단기 개발을 시도한 바 있다. 중국 전통의학 문화권에 속해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체질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나 최근들어 중국, 일본에서의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유 등⁹이 연변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체질 진단틀(Sasang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SCAT)의 해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본 바 있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류 등¹⁰이 SSCQ-P 설문지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만든 일본인 환자용 사상체질 설문지(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Japanese; 이하 SSCQ-J)를 이용하여 일본인의 사상체질 분포와 한방치료를 받은 환자군의 질병 및 증상유형에 대해 알아보았고, 유 등¹¹이 한국한의학회에서 개발한 체질설문지를 활용하여 일본인에게 적용하였을 때의 신뢰도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김 등¹²이 한국한의학회에서 개발한 체질진단도구와 소증, 병증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본인의 사상체질 분포와 소증, 병증 특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 특히 이 연구는 단순히 외국

인 사상체질 진단법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소증, 병증이라는 사상의학적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어 의의가 컸다고 보며 이러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SSCQ-P, SSCQ-J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국인 301명과 일본인 361명의 사상체질에 따른 설문 문항 응답을 비교하여 체질별 및 나라별 응답 특성을 알아보고 소정의 결과를 얻었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는 바이다.

II. 對象 및 方法

1. 대상자 및 자료 수집

일본인군은 2010년 1월~2011년 2월 중순까지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연구대상자로 모집한 36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일본인 환자를 사상체질 설문지(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Japanese; 이하 SSCQ-J)에 대한 응답결과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2010-146再).

일본인군과의 비교를 위한 한국인군은 2006년 11월~2010년 9월까지 부산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하였던 환자 301명이며, on-line 사상체질설문시스템¹⁾에 등록되어있던 이들 대상자들의 환자용 사상체질 설문지(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이하 SSCQ-P)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

대상자 기준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한 자,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이해 가능하며 스스로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였으며, 체질이 태양인으로 진단된 자는 빈도수가 충분치 않아 제외하였다.

2. 사상체질진단 및 연구방법

일본인 연구대상자 361명은 SSCQ-J 설문지를 작성한 후,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이면서 일본어가 가능한 한의사 1인으로부터 체질 진단을 받았다. 진단의는 환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환자의 용모사기,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에 대하여 파악한 후 사상체질 진단을 하였다.

한국인 연구 대상자 301명은 SSCQ-P 설문지를 작성하고, 일본인 대상자 체질진단을 맡았던 한의사 1인을 포함한 사상체질의학과 전문의 한의사 2인으로부터 체질 진단을 받았다. 진단의는 마찬가지로 환자를 직접 면담하면서 용모사기,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에 대하여 파악한 후 사상체질 진단을 하였고, 그 당시 환자는 진단된 사상체질에 해당하는 체질한약을 복용하여 그에 따른 반응까지 살펴본 후 대상자의 최종 체질을 확인하였었다. 일반적으로 체질진단 방법과 관련하여 체질한약에 대한 약리반응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점³⁾을 고려한다면 체질한약을 복용한 한국인 301명은 일본인군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인 체질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일본인 연구대상자들이 작성한 각각의 SSCQ-P, SSCQ-J 설문지에 대한 문항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3. 설문지 개요

1) SSCQ-P(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Patients)

SSCQ-P는 기존 사상 체질 설문지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2007년까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학회 사상체질의학회의 공동 개발⁴⁾을 통해 만들어진 사상체질진단 설문지이며 현재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시스템²⁾을 통한 체질분석 서비스 및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설문지는 용모사기, 체형기상,

1) <http://www.sasangmedi.or.kr>

2) <http://www.sasangmedi.or.kr>

성질제간, 병증약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형식이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로 응답하는 삼지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문항들은 특정 체질에 관련된 내용을 묻고 있는데, 향후 수정 보완을 위한 연구를 염두에 둔다. 따라 개별 문항들이 모두 하나의 체질에만 관련된 문항이 아니라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체질에까지 동시에 소속될 수 있다.

2) SSCQ-J(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for Japanese)

SSCQ-J는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SSCQ-P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으로 동의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가 1차로 번역한 후 일본 도쿄 게이오대학 의학부 한방센터에 근무하는 일본인 전문의 의사와 지역 일본어 교실의 교사 10인으로부터 번역상 미흡한 부분을 감수 받았다. 그리고 번역한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가능한 교사 1인에게 한국어로 재번역 해보게 함으로써 의미 전달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 확인받았다.

4. 통계 분석

연구에 사용된 자료처리와 분석은 SAS 9.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한국인과 일본인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을 위해 성별분포와 관련하여 Fisher exact test를, 연령·키·체중 관련하여 t-tes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각 체질과 관련된 문항들의 '그렇다/ 아니다'의 응답결과가 해당 체질 한국인군과 일본인군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인 문항을 선별,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인군과 일본인군의 사상체질에 따라 설문지 설계 당시 배속 하였던 해당 체질관련 문항을 추려 응답결과의 교차 분석을 통한 χ^2 test를 시행하였고 p -value<0.05인 문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문항의 한국인과 일본인의 응답을 다시 비교하여 χ^2 test를 시행하였고 p -value<0.05인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응답성향 혹은 응답 빈도수 결과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III. 結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한국인은 남자 63명, 여자 238명, 일본인은 남자 87명, 274명으로 p -value 0.332로 남녀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한국인 평균 41.40세, 일본인 48.06세이고, 키는 한국인 평균 162.92cm, 일본인 160.37cm, 체중은 한국인 평균 59.57kg, 일본인 54.34kg으로 세 특성 모두 p -value<0.001로 한국인과 일본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2.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

전체 연구대상자 총 662명 중 한국인 301명, 일본인 361명이었고 전체 사상체질 비율은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각각 156명(23.56%), 206명(31.12%), 300명(45.32%)으로 소음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 연구 대상자 301명 중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각각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Korean	Japanese	Fisher or t-value	p-value
Male/Female (N)	63/238	87/274	0.941*	0.332
Age (mean±SD)	41.40±14.17	48.06±16.02	-5.67†	<.001
Height(cm) (mean±SD)	162.92±7.01	160.37±7.40	4.51†	<.001
Weight(kg) (mean±SD)	59.57±9.41	54.34±11.15	6.54†	<.001

* : by Fisher exact test. † : by t-test

56명(18.60%), 101명(33.55%), 144명(47.84%)로 소음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본인 연구 대상자 361명 중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각각 100명(27.70%), 105명(29.09%), 156명(43.21%)로 소음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2).

Table 2.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 of Subjects

			Soyangin	Taeumin	Socumin	Total
Korean	Male	N(%)	19(30.16%)	29(46.03%)	15(23.81%)	63(100.00%)
	Female	N(%)	37(15.55%)	72(30.25%)	129(54.20%)	238(100.00%)
	Total	N(%)	56(18.60%)	101(33.55%)	144(47.84%)	301(100.00%)
Japanese	Male	N(%)	23(26.44%)	43(49.43%)	21(24.14%)	87(100.00%)
	Female	N(%)	77(28.10%)	62(22.63%)	135(49.27%)	274(100.00%)
	Total	N(%)	100(27.70%)	105(29.09%)	156(43.21%)	361(100.00%)
Total	Male	N(%)	42(28.00%)	72(48.00%)	36(24.00%)	150(100.00%)
	Female	N(%)	114(22.27%)	134(26.17%)	264(51.56%)	512(100.00%)
	Total	N(%)	156(23.56%)	206(31.12%)	300(45.32%)	662(100.00%)

Table 3.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ame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oyangin Group.

Category (N)	Item	Korean			Japanese			Korean -Japanese
		Yes N(%)	No N(%)	chi-square(p)	Yes N(%)	No N(%)	chi-square(p)	chi-square(p)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10)	p2_2	22(91.67)	2(8.33)	16.667(<.001)	69(89.61)	8(10.39)	48.325(<.001)	0.087(.768)
	p2_4	24(77.42)	7(22.58)	9.323(.002)	52(63.41)	30(36.59)	5.902(.015)	2.004(.157)
	p3_2	26(76.47)	8(23.53)	9.529(.002)	49(73.13)	18(26.87)	14.343(<.001)	0.131(.717)
	p4_3	20(71.43)	8(28.57)	5.143(.023)	45(81.82)	10(18.18)	22.272(<.001)	1.179(.278)
	p5_3	39(88.64)	5(11.36)	26.273(<.001)	64(88.89)	8(11.11)	43.556(<.001)	0.002(.967)
	p6_2	33(86.84)	5(13.16)	20.632(<.001)	76(96.2)	3(3.8)	67.456(<.001)	3.529(0.06)
	p6_5	49(98)	1(2)	46.080(<.001)	77(97.47)	2(2.53)	71.203(<.001)	0.038(.845)
	p7_1	28(77.78)	8(22.22)	11.111(<.001)	48(68.57)	22(31.43)	9.657(0.002)	0.993(.319)
	p7_6	30(90.91)	3(9.09)	22.091(<.001)	67(93.06)	5(6.94)	53.389(<.001)	0.148(.700)
	p7_8	44(86.27)	7(13.73)	26.843(<.001)	77(84.62)	14(15.38)	43.615(<.001)	0.071(.789)
Physical Appearance (6)	p10_5	28(87.5)	4(12.5)	18(<.001)	62(82.67)	13(17.33)	32.013(<.001)	0.392(.531)
	p13_2	32(94.12)	2(5.88)	26.471(<.001)	50(71.43)	20(28.57)	12.857(<.001)	7.063(.008)*
	p13_4	24(80)	6(20)	10.8(.001)	65(89.04)	8(10.96)	44.507(<.001)	1.480(.224)
	p14_1	9(28.13)	23(71.88)	6.125(.013)	20(29.85)	47(70.15)	10.881(0.001)	0.031(.860)
	p15_1	30(81.08)	7(18.92)	14.297(<.001)	47(79.66)	12(20.34)	20.763(<.001)	0.029(.865)
	p17_2	27(77.14)	8(22.86)	10.314(.001)	60(81.08)	14(18.92)	28.595(<.001)	0.229(.632)
Temperament and Talent (5)	p22	4(13.79)	25(86.21)	15.207(<.001)	5(7.04)	66(92.96)	52.409(<.001)	1.146(.284)
	p32	8(22.86)	27(77.14)	10.314(.001)	22(36.07)	39(63.93)	4.738(.03)	1.806(.179)
	p33	6(18.18)	27(81.82)	13.364(<.001)	11(19.3)	46(80.7)	21.491(<.001)	0.017(.896)
	p65	20(71.43)	8(28.57)	5.143(.023)	47(74.6)	16(25.4)	15.254(<.001)	0.101(.751)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5)	p67	9(31.03)	20(68.97)	4.172(.041)	7(11.48)	54(88.52)	36.213(<.001)	5.144(.023)*
	p78_2	28(80)	7(20)	12.6(<.001)	61(75.31)	20(24.69)	20.753(<.001)	0.301(.583)
	p80_1	4(17.39)	19(82.61)	9.783(.002)	22(30.56)	50(69.44)	10.889(.001)	1.520(.218)
	p81_5	28(71.79)	11(28.21)	7.410(.007)	50(72.46)	19(27.54)	13.928(<.001)	0.006(.941)
	p82_4	27(75)	9(25)	9(.003)	72(80.9)	17(19.1)	33.989(<.001)	0.541(.462)
p82_7	29(78.38)	8(21.62)	11.919(<.001)	60(69.77)	26(30.23)	13.442(<.001)	0.959(.327)	

* : p-value<0.05

3. 사상체질별 응답 결과 분석

1) 소양인

소양인 문항은 58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인 문항은 26문항 44.83%이었다.

(1)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

한국인·일본인 소양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일치하는 문항은 총 26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10문항 p2_2, p2_4, p3_2, p4_3, p5_3, p6_2, p6_5, p7_1, p7_6, p7_8 / 체형기상 관련 6문항 p10_5, p13_2, p13_4, p14_1, p15_1, p17_2 / 성질제간 관련 5문항 p22, p32, p33, p65, p67 / 병증약리 관련 5문항 p78_2, p80_1, p81_5, p82_4, p82_7이었다. 이 가운데 ‘그렇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10문항 p2_2, p2_4, p3_2, p4_3, p5_3, p6_2, p6_5, p7_1, p7_6, p7_8 / 체형기상 관련 5문항 p10_5, p13_2, p13_4, p15_1, p17_2 / 성질제간 관련 1문항 p65 / 병증약리 관련 4문항 p78_2, p81_5, p82_4, p82_7이었고, ‘아니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6문항으로 체형기상 관련 1문항 p14_1 / 성질제간 관련 4문항 p22, p32, p33, p67 / 병증약리 관련 1문항 p80_1이었다.

그 중 p13_2, p67의 문항은 한국인·일본인 간에 χ^2 test 결과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문항들은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동일하였으므로 응답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항들은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2)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

한국인·일본인 소양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은 없었다.

2) 태음인

태음인 문항은 68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36문항 52.9%이었다.

(1)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

한국인·일본인 태음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일치하는 문항은 총 35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11문항 1_6, p2_1, p2_2, p2_3, p2_5, p4_1, p6_5, p6_6, p7_2, p7_7, p9_3 / 체형기상 관련 8문항 p10_1, p10_5, p11_3, p14_2, p15_2, p15_4, p16_5, p17_3 / 성질제간 관련 8문항 p20, p21, p30, p38, p39, p49, p66, p69 / 병증약리 관련 8문항 p73_6, p75_8, p77_6, p77_7, p78_1, p78_3, p81_1, p81_8이었다. 이 가운데 ‘그렇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21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9문항 p2_2, p2_3, p2_5, p4_1, p6_5, p6_6, p7_2, p7_7, p9_3 / 체형기상 관련 6문항 p10_5, p11_3, p14_2, p15_2, p15_4, p16_5 / 성질제간 관련 1문항 p66 / 병증약리 관련 5문항 p73_6, p75_8, p77_6, p78_3, p81_8이었고, ‘아니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14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2문항 p1_6, p2_1 / 체형기상 관련 2문항 p10_1, p17_3 / 성질제간 관련 7문항 p20, p21, p30, p38, p39, p49, p69 / 병증약리 관련 3문항 p77_7, p78_1, p81_1이었다.

그 중 p9_3, p11_3, p14_2, p69, p73_6의 문항은 한국인·일본인 간에 χ^2 test 결과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다섯 문항은 응답 성향이 두 나라간 동일하였으므로 응답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항들은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4).

(2)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

한국인·일본인 태음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

Table 4.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ame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aeemin Group.

Category (N)	Item	Korean			Japanese			Korean-Japanese
		Yes N(%)	No N(%)	chi-square(p)	Yes N(%)	No N(%)	chi-square(p)	chi-square(p)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11)	p1_6	17(30.91)	38(69.09)	8.018(.005)	20(25.32)	59(74.68)	19.253(<.001)	0.507(.476)
	p2_1	15(22.73)	51(77.27)	19.636(<.001)	18(19.78)	73(80.22)	33.242(<.001)	0.200(.655)
	p2_2	50(89.29)	6(10.71)	34.571(<.001)	57(82.61)	12(17.39)	29.348(<.001)	1.118(.290)
	p2_3	46(79.31)	12(20.69)	19.931(<.001)	54(71.05)	22(28.95)	13.474(<.001)	1.185(.276)
	p2_5	67(97.1)	2(2.9)	61.232(<.001)	67(93.06)	5(6.94)	53.389(<.001)	1.222(.269)
	p4_1	40(65.57)	21(34.43)	5.918(.015)	46(68.66)	21(31.34)	9.328(.002)	0.138(.711)
	p6_5	81(95.29)	4(4.71)	69.753(<.001)	88(97.78)	2(2.22)	82.178(<.001)	0.814(.367)
	p6_6	94(97.92)	2(2.08)	88.167(<.001)	89(97.8)	2(2.2)	83.176(<.001)	0.003(.957)
	p7_2	38(64.41)	21(35.59)	4.898(.027)	38(64.41)	21(35.59)	4.898(.027)	0(1)
	p7_7	73(91.25)	7(8.75)	54.45(<.001)	78(92.86)	6(7.14)	61.714(<.001)	0.145(.703)
	p9_3	71(94.67)	4(5.33)	59.853(<.001)	64(84.21)	12(15.79)	35.579(<.001)	4.357(.037)*
Physical Appearance (8)	p10_1	22(34.92)	41(65.08)	5.730(.017)	27(35.53)	49(64.47)	6.368(.012)	0.006(.941)
	p10_5	51(86.44)	8(13.56)	31.340(<.001)	58(81.69)	13(18.31)	28.521(<.001)	0.537(.464)
	p11_3	45(80.36)	11(19.64)	20.643(<.001)	51(64.56)	28(35.44)	6.696(.010)	3.982(.046)*
	p14_2	51(80.95)	12(19.05)	24.143(<.001)	44(63.77)	25(36.23)	5.232(.022)	4.821(.028)*
	p15_2	56(83.58)	11(16.42)	30.224(<.001)	70(88.61)	9(11.39)	47.101(<.001)	0.775(.379)
	p15_4	48(71.64)	19(28.36)	12.552(<.001)	49(66.22)	25(33.78)	7.784(.005)	0.482(.487)
	p16_5	60(84.51)	11(15.49)	33.817(<.001)	81(89.01)	10(10.99)	55.396(<.001)	0.717(.397)
	p17_3	3(3.7)	78(96.3)	69.444(<.001)	3(2.94)	99(97.06)	90.353(<.001)	0.083(.774)
Temperament and Talent (8)	p20	15(30)	35(70)	8(.0047)	17(27.42)	45(72.58)	12.645(<.001)	0.090(.764)
	p21	14(23.33)	46(76.67)	17.067(<.001)	15(18.75)	65(81.25)	31.25(<.001)	0.439(.508)
	p30	10(21.28)	37(78.72)	15.511(<.001)	18(30)	42(70)	9.6(.002)	1.038(.308)
	p38	11(22)	39(78)	15.68(<.001)	27(38.03)	44(61.97)	4.070(.044)	3.499(.061)
	p39	10(18.52)	44(81.48)	21.407(<.001)	20(26.67)	55(73.33)	16.333(<.001)	1.168(.280)
	p49C	20(36.36)	35(63.64)	4.091(.043)	21(35.59)	38(64.41)	4.898(.027)	0.007(.932)
	p66	41(71.93)	16(28.07)	10.965(<.001)	51(75)	17(25)	17(<.001)	0.150(.698)
	p69	6(11.76)	45(88.24)	29.824(<.001)	1(1.11)	89(98.89)	86.044(<.001)	7.831(.005)*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8)	p73_6	53(71.62)	21(28.38)	13.838(<.001)	75(89.29)	9(10.71)	51.857(<.001)	7.980(.005)*
	p75_8	58(77.33)	17(22.67)	22.413(<.001)	52(71.23)	21(28.77)	13.164(<.001)	0.721(.396)
	p77_6	73(86.9)	11(13.1)	45.762(<.001)	65(76.47)	20(23.53)	23.824(<.001)	3.071(.080)
	p77_7	21(31.82)	45(68.18)	8.727(.003)	24(28.92)	59(71.08)	14.759(<.001)	0.147(.702)
	p78_1	17(24.29)	53(75.71)	18.514(<.001)	27(30.34)	62(69.66)	13.764(<.001)	0.717(.397)
	p78_3	55(79.71)	14(20.29)	24.362(<.001)	68(77.27)	20(22.73)	26.182(<.001)	0.135(.713)
	p81_1	23(33.33)	46(66.67)	7.667(.006)	29(34.94)	54(65.06)	7.530(.006)	0.043(.835)
	p81_8	44(63.77)	25(36.23)	5.232(.022)	52(75.36)	17(24.64)	17.754(<.001)	2.191(.139)

* : p-value<0.05

이 서로 다른 문항은 총 1문항으로 체형기상 관련 p13_3의 '나의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다(가슴을 오르 린다)'이었다 (Table 5).

3) 소음인

소음인 문항은 71개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34문항 47.89%

이었다.

(1)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 한국인·일본인 소음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일치하는 문항은 총 31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12 문항 1_7, p1_8, p2_4, p4_3, p5_5, p5_7, p5_9, p6_4,

Table 5.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Different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Taeumin Group.

Category (N)	Item	Korean			Japanese			Korean-Japanese
		Yes N(%)	No N(%)	chi-square(p)	Yes N(%)	No N(%)	chi-square(p)	chi-square(p)
Physical Appearance	p13_3	60(78.95)	16(21.05)	25.474(<.001)	36(39.56)	55(60.44)	3.967(0.046)	26.287(<.001)

Table 6.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ame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oeumin Group.

Category (N)	Item	Korean			Japanese			Korean-Japanese
		Yes N(%)	No N(%)	chi-square(p)	Yes N(%)	No N(%)	chi-square(p)	chi-square(p)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12)	p1_7	14(15.38)	77(84.62)	43.615(<.001)	12(10.71)	100(89.29)	69.143(<.001)	0.987(.322)
	p1_8	11(11.83)	82(88.17)	54.204(<.001)	16(14.41)	95(85.59)	56.225(<.001)	0.295(.587)
	p2_4	91(85.85)	15(14.15)	54.491(<.001)	89(70.63)	37(29.37)	21.460(<.001)	7.663(.006)*
	p4_3	59(76.62)	18(23.38)	21.831(<.001)	95(90.48)	10(9.52)	68.810(<.001)	6.549(.011)*
	p5_5	64(70.33)	27(29.67)	15.044(.0001)	69(66.35)	35(33.65)	11.115(.0009)	0.355(.551)
	p5_7	70(89.74)	8(10.26)	49.282(<.001)	112(94.92)	6(5.08)	95.220(<.001)	1.894(.169)
	p5_9	45(81.82)	10(18.18)	22.273(<.001)	65(82.28)	14(17.72)	32.924(<.001)	0.005(.946)
	p6_4	82(84.54)	15(15.46)	46.278(<.001)	85(80.19)	21(19.81)	38.642(<.001)	0.656(.418)
	p7_3	84(77.06)	25(22.94)	31.936(<.001)	97(85.84)	16(14.16)	58.062(<.001)	2.838(.09)
	p7_4	66(83.54)	13(16.46)	35.557(<.001)	100(84.03)	19(15.97)	55.135(<.001)	0.008(.93)
	p7_9	108(90)	12(10)	76.8(<.001)	108(80)	27(20)	48.6(<.001)	4.904(.027)*
	p8_3	118(98.33)	2(1.67)	112.133(<.001)	108(96.43)	4(3.57)	96.571(<.001)	0.834(.361)
Physical Appearance	p11_4	21(25.61)	61(74.39)	19.512(<.001)	43(39.81)	65(60.19)	4.482(.0343)	4.210(.040)*
Temperament and Talent (4)	p35	15(18.52)	66(81.48)	32.111(<.001)	29(30.53)	66(69.47)	14.411(.0001)	3.362(.067)
	p43	10(10.87)	82(89.13)	56.348(<.001)	16(16.16)	83(83.84)	45.343(<.001)	1.136(.287)
	p59	32(32.32)	67(67.68)	12.374(.0004)	35(32.71)	72(67.29)	12.794(.0003)	0.004(.953)
	p70	44(70.97)	18(29.03)	10.903(.001)	51(63.75)	29(36.25)	6.05(0.0139)	0.822(.365)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14)	p72_4	63(63.64)	36(36.36)	7.364(.0067)	100(75.76)	32(24.24)	35.030(<.001)	4.001(.046)*
	p73_2	83(85.57)	14(14.43)	49.083(<.001)	124(94.66)	7(5.34)	104.496(<.001)	5.506(.019)*
	p73_5	74(73.27)	27(26.73)	21.871(<.001)	101(87.83)	14(12.17)	65.817(<.001)	7.411(.007)*
	p73_7	65(63.73)	37(36.27)	7.686(.0056)	110(88)	15(12)	72.2(<.001)	18.741(<.001)*
	p74_4	72(66.67)	36(33.33)	12(.0005)	75(61.98)	46(38.02)	6.950(.0084)	0.545(.461)
	p75_6	100(82.64)	21(17.36)	51.579(<.001)	126(94.74)	7(5.26)	106.474(<.001)	9.445(.002)*
	p75_7	19(22.89)	64(77.11)	24.398(<.001)	11(8.94)	112(91.06)	82.935(<.001)	7.749(.005)*
	p76_4	69(71.88)	27(28.13)	18.375(<.001)	108(83.08)	22(16.92)	56.892(<.001)	4.081(.043)*
	p77_8	82(82)	18(18)	40.96(<.001)	96(78.05)	27(21.95)	38.707(<.001)	0.535(.465)
	p77_9	77(86.52)	12(13.48)	47.472(<.001)	85(86.73)	13(13.27)	52.898(<.001)	0.002(.965)
	p80_2	84(74.34)	29(25.66)	26.770(<.001)	112(91.8)	10(8.2)	85.279(<.001)	12.931(<.001)*
	p80_4	52(68.42)	24(31.58)	10.316(.0013)	75(72.82)	28(27.18)	21.447(<.001)	0.410(.522)
	p82_14	28(25)	84(75)	28(<.001)	17(12.98)	114(87.02)	71.824(<.001)	5.784(.016)*
	p82_15	16(15.09)	90(84.91)	51.660(<.001)	21(15.67)	113(84.33)	63.164(<.001)	0.015(.902)

* : p-value<0.05

p7_3, p7_4, p7_9, p8_3 / 체형기상 관련 1문항 p11_4 / 성질제간 관련 4문항 p35, p43, p59, p70 / 병증약리 관련 14문항 p72_4, p73_2, p73_5, p73_7, p74_4, p75_6, p75_7, p76_4, p77_8, p77_9, p80_2, p80_4,

p82_14, p82_15이었다. 이 가운데 '그렇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22문항으로 p2_4, p4_3, p5_5, p5_7, p5_9, p6_4, p7_3, p7_4, p7_9, p8_3, p70, p72_4, p73_2, p73_5, p73_7, p74_4, p75_6, p76_4, p77_8,

Table 7.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Different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oeumin Group.

Category	Item	Korean			Japanese			Korean-Japanese
		Yes N(%)	No N(%)	chi-square(<i>p</i>)	Yes N(%)	No N(%)	chi-square(<i>p</i>)	chi-square(<i>p</i>)
Physical Appearance	p13_1	56(65.88)	29(34.12)	8.577(.003)	49(40.83)	71(59.17)	4.033(.045)	12.495(<.001)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p73_4	30(30.93)	67(69.07)	14.113(<.001)	118(90.77)	12(9.23)	86.431(<.001)	87.671(<.001)
	p75_2	35(34.31)	67(65.69)	10.039(.001)	77(64.71)	42(35.29)	10.294(.001)	20.296(<.001)

p77_9, p80_2, p80_4이었고, ‘아니다’의 응답 빈도가 더 높은 문항은 총 9문항으로 p1_7, p1_8, p11_4, p35, p43, p59, p75_7, p82_14, p82_15이었다.

그 중 p2_4, p4_3, p7_9, p11_4, p72_4, p73_2, p73_5, p73_7, p75_6, p75_7, p76_4, p80_2, p82_14의 문항은 한국인·일본인 간에 χ^2 test 결과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 문항은 응답 성향이 두 나라간 동일하였으므로 응답 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문항들은 $p > 0.05$ 로 두 나라간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6).

(2)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

한국인·일본인 소음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은 총 3문항으로 체형기상 관련 1문항 p13_1의 ‘나의 어깨는 아래로 처져 있다 / 병증약리 관련 2문항 p73_4의 ‘밀가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p75_2의 ‘잠자리가 바뀌면 못 잔다’이었다 (Table 7).

4) 한국인·일본인 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 비율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들(Table 3, 4, 6)을 항목별 전체 문항수 대비 비율로 다시 나타내었다.

소양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같은 성향으로 응답한 문항은 전체 58개의 소양인 문항 가운데 44.83%인 26개이었고, 세부 항목별로는 용모사기 17

문항 중 58.82%인 10문항, 체형기상 11문항 중 54.55%인 6문항, 성질재간 12문항 중 41.67%인 5문항, 병증약리 18문항 중 27.78%인 5문항으로, 두 나라간 동일한 성향으로 응답하는 문항 비율이 용모사기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병증약리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태음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같은 성향으로 응답한 문항은 전체 68개의 태음인 문항 가운데 51.47%인 35개이었고, 세부 항목별로는 용모사기 19문항 중 57.89%인 11문항, 체형기상 12문항 중 66.67%인 8문항, 성질재간 13문항 중 61.54%인 8문항, 병증약리 24문항 중 33.33%인 8문항으로, 두 나라간 동일한 성향으로 응답하는 문항 비율이 체형기상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병증약리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소음인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같은 성향으로 응답한 문항은 전체 71개의 소음인 문항 가운데 43.66%인 31개이었고, 세부 항목별로는 용모사기 17문항 중 70.59%인 12문항, 체형기상 12문항 중 8.33%인 1문항, 성질재간 11 문항 중 36.36%인 4문항, 병증약리 31문항 중 45.16%인 14문항으로, 두 나라간 동일한 성향으로 응답하는 문항 비율이 용모사기 관련 항목에서 가장 높았고 체형기상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연구 대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성향으로 응답한 문항 비율이 용모사기,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 항목 각각 62.26%, 42.86%, 47.22%, 36.99%로 용모사기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병증약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Table 8).

Table 8. Ratio of Item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ame Response Dispositio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Category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Physical Appearance		Temperament and Talent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Total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Total	N(%)
Soyangin	17	10(58.82)	11	6(54.55)	12	5(41.67)	18	5(27.78)	58	26(44.83)
Taeumin	19	11(57.89)	12	8(66.67)	13	8(61.54)	24	8(33.33)	68	35(51.47)
Soeumin	17	12(70.59)	12	1(8.33)	11	4(36.36)	31	14(45.16)	71	31(43.66)
Total	53	33(62.26)	35	15(42.86)	36	17(47.22)	73	27(36.99)		

IV. 考 察

동무 이제마가 창시한 사상체질의학은 다른 나라의 전통의학과는 차별화되는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의학으로, 각 체질별로 타고나는 性情의 작용으로 인해 장국대소의 편차 및 생라병리적 특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독창적인 사상의학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고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권이라는 인종적, 문화적 공통점이 있고, 특히 같은 중국 전통의학 문화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문화권의 나라들보다 사상의학을 조금 더 쉽게 적용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볼 때 앞으로의 사상의학 국제화 연구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사상체질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에 있어 각 체질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았고 소정의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정 결과에서 남녀 성별 분포는 한국인과 일본인 두 대상자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 없이 동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연령, 키, 체중 특성은 그렇지 않았다. 두 군이 모두 동질한 특성을 갖도록 대상자가 모집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나 일본이라는 국외에서 사상체질 관련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고 이는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추후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대상자의 사상체질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인 301명 중에서 소음인의 비율이 47.84%로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태음인 33.55%, 소양인 18.60%의 순이었고, 일본인 361명 중에서 소음인의 비율이 43.21%로 역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태음인 29.09%, 소양인 27.70%이었다. 동무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 「四象人辨證論」의 사상체질인의 분포를 밝히는 글에서 ‘太少陰陽人 以今時目見 一縣萬人數 大略論之 則太陰人 五千人也 少陽人 三千人也 少陰人 二千人也 太陽人數 絶少 一縣中 或三四人 十餘人而已’ 이라 하여 사상인의 분포와 관련하여 태음인:소양인:소음인의 비율이 5:3:2 정도이며 태음인의 수가 가장 많고 소음인의 수가 가장 적다고 하였다. 한국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던 국내에서의 연구 결과들¹⁵⁻¹⁷에서도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의 분포 비율은 각각 36.9~47.8%, 25.7~29.2%, 22.8~25.7% 수준으로 다소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 태음인의 수가 가장 많고 소음인의 수가 가장 적다는 분포는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 한국인의 체질 분포 결과가 기준에 알려진 바와 달리 소음인의 분포 비율이 높았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부산지역의 일개 한방병원을 방문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제약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과 다른 체질에 비해 소음인 환자군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본 연구의 일본인 사상체질 분포 결과에서 소음인의 비율이 높았던 것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있었던 류¹⁰의 일본인 건강인군과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전체 대상자의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체질분포가 각각 29.9%, 26.3%, 41.8%로 나타났던 것과, 김¹²의 일본인 대상 연구의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체질분포가 각각 19.4%, 36.8%, 43.8%로 모두 소음인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관 지어 본다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체질 분포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상체질에 따른 설문문항 응답 결과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 중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과 응답 성향이 서로 반대인 문항이 있었다.

먼저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을 살펴보면, 체질별 전체 문항수 대비 한국인-일본인의 응답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수 비율을 보면 소양인에서는 총 58개의 소양인 관련 문항 중 44.83%인 26문항에서 두 나라 간 응답 성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항항목별로는 용모사기 관련한 17문항 중 58.82%인 10문항, 체형기상 관련한 11문항 중 54.55%인 6문항, 성질재간 관련한 12문항 중 41.67%인 5문항, 병증약리 관련한 18문항 중 27.78%인 5문항으로 용모사기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병증약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태음인에서는 총 68개의 태음인 관련 문항 중 51.47%인 35문항에서 두 나라 간 응답 성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항항목별로는 용모사기 관련한 19문항 중 57.89%인 11문항, 체형기상 관련한 총 12문항 중 66.67%인 8문항, 성질재간 관련한 13문항 중 61.54%인 8문항, 병증약리 관련한 24문항 중 33.33%인 8문항으로 체형기상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병증약리 관련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소음인에서는 총 71개의 소음인 관련 문항 중 43.66%인 31문항에서 응답 성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중 용모사기 관련한 17문항 중 70.59%인 12문항, 체형기상 관련한 12문항 중 8.33%인 1문항, 성질재간 관련한 11문항 중 36.36%인 4문항, 병증약리 관련한 31문항 중 43.66%인 14문항이었다. 한국인과 일본인 소음인이 같은 성향으로 응답하는 문항 비율은 용모사기 관련 문항에서 가장 높았고, 체형기상 관련 문항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연구 대상자로 봤을 때는 두 나라 간 같은

성향으로 응답한 문항 비율이 용모사기,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 항목별 각각 62.26%, 42.86%, 47.22%, 39.72%로 용모사기 항목에서 가장 높고 병증약리 항목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선천적인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용모사기 항목에서는 두 나라간 비슷한 인종적 영향으로 응답 성향이 조금 더 비슷한 경향이 있었고, 사회 문화적 분위기나 식습관·생활습관 등의 후천적 요소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형기상, 성질재간, 병증약리 항목에서는 공통된 응답 성향의 문항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오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두 나라간 ‘그렇다’ ‘아니다’의 응답 성향이 서로 다른 문항은 소양인 문항에서는 없었고, 태음인 문항에서는 체형기상 관련 1문항으로 ‘나의 어깨는 안으로 말려 있다’ 문항에 대해 한국인에서 ‘그렇다’, 일본인에서 ‘아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소음인 문항에서는 체형기상 관련 1문항, 병증약리 관련 2문항 총 3문항으로, 체형기상 관련된 ‘나의 어깨는 아래로 처져 있다’ 문항에 대해 한국인에서 ‘그렇다’, 일본인에서 ‘아니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병증약리 관련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못 잔다’ 문항에 대해 한국인에서 ‘아니다’, 일본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위와 같이 통계적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인 문항 중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응답성향이 대부분 서로 같게 나타났고 일부분에 있어서만 응답 성향이 반대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통계적 유의한 응답 차이가 있었던 문항에 대해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응답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미루어 본다면 일본인에서도 한국인과 공통되는 사상의학적 특징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일본인에 대한 사상체질의학의 실제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 사상체질의학은 단순히 체질만을 진단하는데 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체질을 찾고 그 개별 체질

에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치료의 학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 추후 일본인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뒷받침된 후 일본인에 대한 실제 사상 의학적 치료와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V. 結 論

한국인 301명과 일본인 361명을 대상으로 사상체 질 설문지(SSCQ-P, SSCQ-J)의 설문 문항 응답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1. 소양인 문항 58개 중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인 문항은 26문항 44.83%으로 이들 문항의 응답 성향은 두 나라가 서로 같았다. 태음인 문항 68개 중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인 문항은 36문항 52.94%이었는데 이 중 35문항은 두 나라 간 응답 성향이 같았고 1문항은 반대의 응답 성향을 보였다. 소음인 문항 71개 중 한국인·일본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응답 차이를 보인 문항은 34문항 47.89%이었는데 이 중 31문항은 두 나라 간 응답 성향이 같았고 3문항은 반대의 응답 성향을 보였다.
2.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에서 응답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면서 응답 성향이 서로 같은 문항을 용모사기, 체형기상, 성질제간, 병증약리 항목 별 비율로 보면 소양인은 병증약리에서의 27.8%를 제외한 다른 세 항목에서 41.7%이상의 일치도를, 태음인은 병증약리에서의 33.3%를 제외한 다른 세 항목에서 57.9%이상의 일치도를, 소음인은 용모사기에서의 70.6%의 높은 일치도와 체형기상에서 8.33%의 매우 낮은 일치도 및 다른 두 항목에서 30-40%의 일치도를 보였다.

VI. 參考文獻

1. Koh BH, Kim SH, Park BG, Jonathan D. Lavelle D.C, Marianne T.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mong th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 Sasang Constitut Med. 1999;11(2):119-150. (Korean)
2. Shin MR, Kim DR, Yoo JS. A Study on the Acoustic Characteristics of the American Adults Using Phonetic System for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75-88. (Korean)
3. Yoo JH, Lee EJ, Park JS, Hahn SK, Lee JH, Kho BH. Test-Retest Method on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79-84. (Korean)
4. Lee EJ, Yoo JH. A Study on Comparison of Responses to Short Form Sasang Classification Questionnaire for American (SF_SSCQ-A) : Pilot test. J Sasang Constitut Med. 2009;21(1):63-78. (Korean)
5. Kim KS, Lee SK, Shin HK, Koh BH, Song IB, Lee EJ. A Study on the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about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Mongolians. J Sasang Constitut Med. 2006;18(2):96-112. (Korean)
6. Kim KS, Lee SK, Shin HK, Koh BH, Song IB, Lee EJ. A Study on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bout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for Mongolians.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1):98-115. (Korean)
7. Kim KS, Kim SH, Lee GS, Yoo JH, Hwang MW, Lee JH et al. Development of Mongolian's SDQ(SDQ-M) : Revision and Transla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99-125. (Korean)
8. Lee JH, Kim KS, Lee GS, Yoo JH, Moon YS, Luvsannyam B et al. A Study on the Facial Morphologic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according to Sasangin : Pilot Study. J Sasang Constitut Med. 2007;19(3):62-74. (Korean)
9. Yoo JH, Kim YY, Do JH, Park KH, Jang ES. The Prelimina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asang

- Constitutional Analysis Tool to Foreign Site based on Yanbian Chinese. *J Sasang Constitut Med.* 2012; 24(3):42-47. (Korean)
10. Ryu DH, Lee HM, Kim KK, Jeon SH, Kim JW. A Study on the Sasang Constitutional Distribution and the Type of Diseases and Symptoms in Japan. *J Sasang Constitut Med.* 2011;23(3):361-373. (Korean)
 11. Yoo JH, Jang ES, Kim YY, Park KH, Lee SW. A Study on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Sasang Constitution Questionnaire Developed by KIOM for Japanese.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2):8-18. (Korean)
 12. Kim YY, Yoo JH, Kim HS, Lee SW. A Study on the Physiological Symptoms and Pathological Symptoms of Japanese to Sasang Constitution.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3):50-59 (Korean)
 13. Jang ES, Lee SW, Yoo JH, Lee HJ, Hwang JH, Joo JC. A Study on the Priority Order of Sasang Constitutional Factors in Oriental Medical Clinics. *J Sasang Constitut Med.* 2008;20(3):133-141 (Korean)
 14. Kim JW. The study on development of Questionnaires program I for the diagnosis of Sasang constitutio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2005. (Korean)
 15. Kim JY, Kim HG.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Sasang Constitutions in Iksan Wonkwang Oriental Medicine. *J Korean Oriental Med.* 2003;24(3):118-129. (Korean)
 16. Lee TG, Kwang MW, Ham TI, Lee SK, Choe BK, Koh BH et al. A Study on the Distributional Rate of Sasangin in Korea. *J Sasang Constitut Med.* 2005;17(3):12-21 (Korean)
 17. Baek YH, Jin HJ, Kim HS, Jang ES, Lee SW. An Overview on the Construction of Korea Constitutional Multicenter Bank for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J Sasang Constitut Med.* 2012;24(2):47-53 (Korean)